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차별 없이 함께 즐긴 부처님 세상



인종·장애 넘어 모두 하나 된 축제의 장

불기 2561년 연등회는 인종과 장애를 모두 뛰어넘은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인 그야말로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었다. 지난 4월29일과 30일 서울 종로와 조계사 일대서 펼쳐진 연등회는 국민과 한국을 방문한 전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4월29일 동국대를 시작으로 동대문, 종로거리 등 서울 곳곳에는 10만개 연등 물결이 일제히 불을 밝혔다. 연등행렬에 앞서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에서는 40개 단체, 1000여 명의 연희단과 어린이, 청소년, 청년 율동단이 '우리 함께 연등회' '벗이여 오라' 등 신명나는 음악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며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어진 연등법회에서 불촉위원장 자승스님은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자 서로 맞잡은 손으로 등불을 높게 들고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가 바로 주인공임을 아는 지혜의 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비의 길을 마음으로 밝혀 무량한 광명의 세상이 환하게 열려가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의 행진선언을 시작으로 연등행렬이 길을 나섰다. 인로왕변, 오방불변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소속 장애인 불자들의 연꽃놀이등, 팔도등이 선두에 섰고, 그 뒤는 '카카오프렌즈' 인기 캐릭터 라이언등, 만화캐릭터 꼬마버스 타요등과 라바등이 따랐다.

무엇보다 이번 연등회는 '세계인의 축제'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다. 연등행렬이 조계사까지 총 3km 구간을 지나는 동안 태국, 베트남, 영국, 포르투갈,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온 관람객들이 행렬을 반갑게 맞았다. 슬로바키아공화국 밀란 라시와 주한대사는 연등회 시작 전부터 종로 탑골공원 인근에서 손수 촬영에 나서는 등 축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마음의 빛으로 어둠 걷어내는
10만 연등물결 종로 수놓고…
세계인 함께 한 한국전통문화

국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삼기 위해 일찌감치 축제 현장을 찾았다"며 취재진들 속에서 사진촬영을 하며 연신 행복한 표정을 짓고 감탄과 환호를 연발했다. 중국 오조사에서 왔다는 통여스님도 카메라 셔터 누르기에 바빴다. 통여스님은 "같은 불교 국가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불자가 꽤 많은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마냥 신기해했다. 남편의 팔짱을 꼭 낀 채 지나가는 행렬들을 보며 "뷰티풀(beautiful)"을 연발하던 린다 겔미어(포르투갈) 씨는 "나는 가톨릭인이지만 수천년 전의 부처님 생일을 축하하는 한국의 불교문화를 보면서 불자가 아닌 게 아까울 정도"라며 "한국 불교가 가진 힘이 굉장하다"고 감탄했다. 행렬이 마무리된 후 종각사거리 보신각 앞에서는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신명나는 회향한마당이 펼쳐졌다.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연등회에 참여한 불자와 시민 등 5000여 명이 자리를 깔까지 지키며 문화공연과 강강술래를 즐겼다.

연등회를 즐기기 위한 인파는 이튿날인 30일까지도 좀처럼 줄지 않았다. 이날 조계사 우정국로 앞 전통문화마당의 먹거리마당과 청춘마당, 전통마당과 국제마당, 나눔마당과 NGO마당 등 총 130여 개 부스는 종일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청춘문화마당에서는 웹툰 작가 어라스님으로 알려진 지찬스님이 불교 애니메이션을 선보였고, 전국 사찰을 둘러보는 가상현실 체험도 진행됐다. 전통마당에서는 사물, 지화연꽃만들기, 탁본과 인경, 불국가 석가탑만들기, 도예 체험 등이 열려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행사는 오후7시 연희단이 중심이 돼 인사동부터 조계사 앞길까지 연등행렬을 선보이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낮부터 전통문화마당을 돌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던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올해는 특히 전통문화마당에 외국인의 참여가 두드러져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보다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불자는 물론 일반시민에게 다가가는 불교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①불촉위원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차별없는 세상을 발원하며 연등을 밝혔다. ②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어울림마당이 동국대 운동장에서 펼쳐졌다. 신나게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율동단원들. ③올해 제등행렬엔 많은 외국인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 특징이다. 태국전통의상을 입고 행진중인 태국불교팀. ④베트남불교팀 ⑤한국과 수교 40주년을 맞은 스리랑카 불교팀도 행렬에 동참했다.



기고

연등회서 중국어 통역...생생한 경험

“모든 불교국가 참여 불자로서 자긍심 커”

올해로 연등회에 동참한지 13년째다. 지난 2005년 부처님오신날에 서울 불광산사 신도 자력으로 봉사하러 나간 것이 첫 인연이 됐다. '전통문화마당'과 연등행렬의 '회향한마당'을 통해 연등회에 '임문'한 셈이다. 그 이후에 주로 전통문화마당에서 불광산사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왔고, 2013년 중국어 안내 방송이 처음 시작했을 때 중국어 아나운서 조흥매 선생의 섭외로 원고준비를 협조하면서 연등회에 본격적으로 가담했다. 2015년 세계평화기원대회에서도 중국어 통역 봉사자로 동참했다. 연등회를 매년 지켜본 안목으로 올해 연등회 중국어 통역을 맡으면서 느낀 소회를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

회를 거듭할수록 축제 분위기가 농후해지는 동시에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 덜어진 것 같아 그 점은 아쉽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봉행된 연등회가 기억에 오래 남는다. 역대 연등회 중 엄벌 소리를 제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화려한 장엄등과 함께 장삼 가사를 수한 스님들이 행렬에 더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올해 연등회에서 또 눈에 띄는 특징은 참여 외국인도 다양해진 것 같고 글로벌 서포터즈 시스템도 정착된 것 같다. 국제불교단체도 점점 다양해지고 거의 모든 불교 국가가 초청된 것 같아 불자로서 자긍심이 높았다. 그리고 올해는 전통문화마당에서 이슬람권 방문객이 예년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난 것 같아 반가웠다.

정치군사적 상황 속에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것 같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재한 중국인의 모습이 보였다. 제등행렬 외국어 안내 종료 후 한 중국인 관광객이 다가와 "양국 관계가 언제쯤 개선될까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세계 평화와 양국간의 우호 관계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한중 관계가 하루 속히 개선되기를 기원한다.

소열녕

수원대 국제대학
교양중국학과 조교수

